당신 속의 낙원 '미디어 You토피아'로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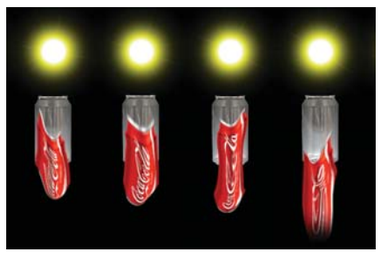
광주시립미술관
내달 24일까지
미디어 아트 특별전
한국·대만 등 9명 참여
영상·체험 작품 다채

▶ 유안공밍 작 'Tomorrowland'

놀이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벤치에 앉아 작품을 감상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건 한적한 놀이공원이다. 회전 목마가 돌아가고, 대관람차도 보인다. 멀리 공주가 살고 있을 것같은 멋진 성도 눈에 띈다. 텅 빈 놀이공원의 고즈넉함을 즐기는 것도 잠시, '갑자기' 놀이공원이 폭파된다. 돌연 해체되버린 '꿈의 낙원'. 4분 57초의 영상 작품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대만 작가 유안공밍의 'Tomorrowland'에 등장하는 놀이공원은 모형이다. 전시실에 놀이공원 벤치를 놓아둔 건 작가의 의도다.

오는 2월 24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에서 열리는 미디어 아트 특별전 '당신 속의 낙원-Media YouTopia'는 흥미로운 전시다. 영상 작품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작품이 많으니 차분히 시간을 갖고 둘러보면 좀 더 알차게 즐길 수 있다. 도슨트의 해설을 듣는 것도 좋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이 중점을 두는 기획 전시 가운데 하나가 미디어 아트다. 광주시가 유네스코 지정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인 점을 감안한 행보다. 올해부터는 광주문화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과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임용현 작 'Delight' 일부

이번 전시에는 미디어아트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세진, 양민하, 이배경, 정연두, 하광석 작가와 대만 미디어 아트를 대표하는 유안공밍 작가가 참여했다. 지역작가(출신)로는 임용현, 정기현, 정운학 작가가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양미나의 '도시풍경-비대칭적이고 계산에 의한, 그리고 자율적 동세의 형태들'은 영상 앞으로 다가가면 관람자의 움직임에 따라 작품이 변화하는 참여형 작품이다. 양미나는 도시 안에 위치한 권위적 상징과 공공의 허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가로 이번 작품에서는 북한의 류경호텔 등을 소재로 삼았다.

요즘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른 난민 문제를 다룬 작품도 눈에 띈다. 김세진 작가의 비디오 작품 '열망으로의 접근'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로케이션 촬영을 통해 이주·이민에 대한 집단적 열망과 이상향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작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민이 이루어지고 있는 멕시코인들의 모습을 그들의 대표 음식인 '또르띠아' 이야기로 풀어내기도 하고, 아시아 이민자들의 애환이 담긴 샌프란시스코 '엔젤섬' 수용시설의 벽에 적힌 '시'를 들려주기도 한다.

정기현의 '실험실-예외점 +4℃'는 수족관과 현미경, 영상 등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전시장에 설치된 실험실 형태의 공간에서는 직접 앉아 현미경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수족관 속의 물고기, 곳곳에 자리한 식물과 씨앗 등은 모두 작가가 직접 기른 것이며 양모와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진 2036년의 지구 모습을 상상한, 둥근 설치 작품도 눈에 띈다.

정연두의 '높은 굽을 신은 소녀'는 1958년 23살 때 홍콩에 밀입국한 문씨 할머니와의 인터뷰를 근거로 만든 작품이다. 당시의 작은 소녀와 2017년을 살아가는 작은 소녀의 세대를 뛰어 넘는 이야기는 영상 속 인터뷰와 함께 천 위에 자수로 새겨져 보여진다. 임용현의 'Delight'는 우리에게 친숙한 '콜라캔'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이미지는 기술적 기법이 더해져 판타지를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에 주목한 작가는 콜라캔에 위에 자신이 생각하는 다채로운 영상을 입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밖에 컴퓨터그래픽으로 만들어낸, 조각난 파도의 이미지가 끊임없이 흘러다니는 이배경의 '생각에 잠긴 공간', 하광석 작가의 '실재와 허상'도 전시된다. 문의 062- 613-7143. /김미은 기자 mekim@

광주예총 차기 회장은 누구?

한갑수 현 부회장·임원식 문협회장 출마…29일 투표

민예총은 내달말 선거

한갑수

임원식

지역 예술단체를 이끌 수장을 뽑는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누가 신임회장이 될지 주목된다.

광주에는 지역예술계 최대 규모인 한국예총광주연합(이하 광주예총)과 한국민족예술인협회 광주시지회(이하 광주민예총)가 있다. 두 단체 모두 회장 임기가 곧 만료됨에 따라 수장 교체를 앞두고 있다.

광주예총은 현 최규철 회장의 임기가 오는 29일까지다. 제7, 8, 9대에 걸쳐 12년을 연임했다. 광주예총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선고 일정을 공고했다. 지역에서는 이번 선거가 조직의 임원진과 산하협회장, 분과위원장의 교체와 맞물리면서 문화예술정책, 집행 등에 적잖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오는 29일 오후 3시 광주예총회관에서 열리는 '2019정기총회'에서 치러진다. 광주예총 산하에는 모두 10개 협회가 있다. 각 협회당 대의원 8명씩 모두 80명과 임원진 15명(부회장단·특별회원), 감사 등 100명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투표결과 과반득표 후보자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2월 1일부터 4년간이다.

현재 차기 회장 후보는 한갑수 현 광주예총 부회장(기호 1번)과 임원식 광주문인협회장(기호 2번)이 출사표를 던졌다. 조각가인 한갑수 후보는 2011년 광주예술문화상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한국현대조각가 62 초대전'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문학박사인 임 후보는 '당신의 텃밭' 등 모두 15권의 작품집과 서평집·칼럼집을 펴냈으며 광주시인협회장을 역임했다.

광주민예총은 2월 말 정기 총회를 통해 신임 회장을 뽑는다. 신임 회장은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현 허달용 회장의 임기는 2월 말까지로, 허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4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광주민예총은 단체의 연합체로 모두 11개의 단체가 소속돼 있다. 놀이터 신명, 극단 토박이, 내벗소리민족예술단, 광주전남작가회의, 민중민족미술인연합회 광주지부 등이 가입 단체들이다.

현재 광주민예총은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후보 등록기간은 지난 21일부터 2월 2일까지로 확정됐다. 총회는 2월 21일(가안)로 잡은 상태다.

광주민예총 관계자는 "후보가 단수일 때는 추대형식을 밟게 될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어떻게 진행될 지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기 회장 후보로는 작곡가이자 서예가인 박종화 5월음악 이사가 거론되고 있다. 박 이사는 출마 공식화에 앞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알레지오 앙상블 정기연주회

2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알레지오 앙상블'〈사진〉의 6번째 정기연주회가 오는 27일 오후 6시 광주시 남구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다.

지난 2014년 창단한 알레지오 앙상블은 매년 정기연주회를 열고 병원 등으로 위문공연을 다니며 음악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시환이 음악감독을 맡은 이번 공연은 애니메이션 수록곡과 텔레만, 슈만의 음악들로 채워진다.

먼저 첼로 앙상블이 '이웃집 토토로'의 주제곡을 피아니스트 정찬미와 협연하며 무대를 연다. 이어 텔레만의 '4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1번'과 슈만의 '피아노 5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44번'으로 무대를 꾸민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솔리스트 이강민·문병현이 연주하는 비발디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과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1번',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등으로 꾸미는 주니어 앙상블의 무대도 마련된다. 전석 1만원. 문의 010-4617-2724.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영화·뮤지컬·드라마서 듣던 노래

29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팝페라테너 박현 등 무대

영화·뮤지컬·드라마에서 사랑받은 노래들을 한 무대에서 듣는다.

팝페라테너 박현〈사진〉과 뮤탑보이스가 함께하는 '시네마뮤지컬 콘서트'가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 남구 구동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팝페라가수이자 테너인 박현은 '라보엠' 등 10여 편의 오페라 작품 주역을 맡고 뮤탑보이스 멤버, 증심사·향림사 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바리톤 최교성·소프라노 박성경·베이스 송현민 등으로 구성된 팝페라 공연단체 뮤탑보이스는 오페라와 뮤지컬·대중가요를 넘나드는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문화단체 '도·시·락' 이순남 대표가 사회를 맡은 이번 공연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을 박현이 부르며 문을 연다. 이어 뮤탑보이스가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 수록곡 '케 세라 세라'를, 전자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은 베토벤 '비창'을 들려준다. 앙상블 '봄'은 탱고 음악 '포르 우나 카베사'로 분위기를 띄우고 박현이 뮤지컬 '이순신'의 주제곡 '나를 태워라'로 무대를 꾸민다. 전석 1만원. 문의 010-6860-5514./백희준 기자 bhj@

년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GOLD회원 모집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주말 (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2/221-4101,3

연회비

구 분	연회비(VAT포함)	비 고
개인(1년)	₩ 2,800,000	본인 1인
증정품	• 객실 무료이용권 2매 • 레스토랑 이용권 1매 • 휘트니스 이용권 4매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